

제5기 요코하마시 지역복지보건계획

계획 기간: 2024~2028년도

요코하마 미소 플랜

개요판



상호이해
유대형성
함께하기



요코하마시의 지역복지보건계획 소개

왜 지역복지보건계획이 필요한가요?

우리 지역에도 갖가지 어려움을 가졌지만, 누구와도 의논하지 못하고 고립된 이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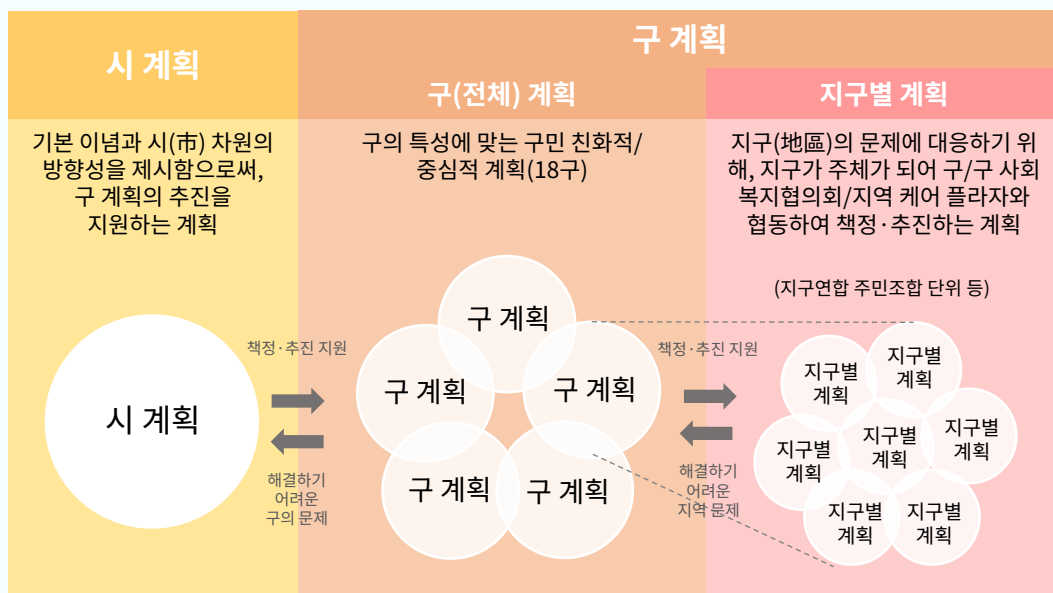
- 지역에는 유아부터 고령자까지의 폭넓은 세대, 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입장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으며, 그중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도 있습니다.
- 그러나 지역 사회의 '유대'가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 갖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으면서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고립되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서로의 '유대', '상부상조' 지역공생사회 실현을 위해서

- 이렇듯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양한 생활문제를 품고 있으면서도, 지역주민 및 해당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유대'와 '상부상조'를 통해, 각자의 생활과 삶의 보람, 그리고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생사회'의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 누구나 안심하며, 건강하고 나답게 살아가려면 시민 여러분, 지원기관, 관련기관 등이 하나가 되어 더 나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궁리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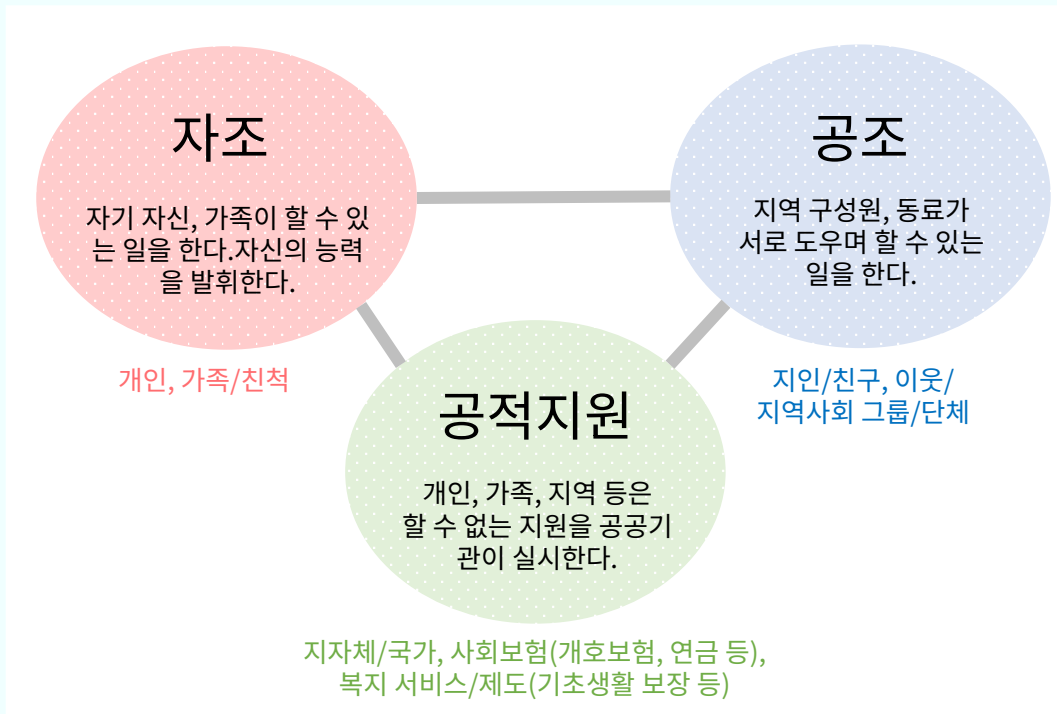
시 계획/구 계획/지구별 계획의 관계

- 요코하마시의 지역복지보건계획은 시 계획, 18구의 구 계획, 지구(地區)별 계획으로 구성됩니다.



‘자조’, ‘공조’ 그리고 ‘공적지원’의 조화

- 지역복지보전은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시도하는 ‘자조(自助)’,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사람들 서로 도와서 해결하는 ‘공조(共助)’, 그리고 행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임하는 ‘공적지원(公助)’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복지보전계획에서는 생활문제와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조’, ‘협조’, ‘공적지원’을 조합하고 서로 관련지음으로써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복지보전 관련 분야,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

- 요코하마시는 복지보전 분야별 계획을 추진하여, 필요한 공공 서비스 등을 실시합니다.
- 지역복지보전계획은 지역의 관점에서 분야별 계획에 공통되는 이념, 방침 및 대처 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또 주민, 사업자 및 지원기관 등이 협동함으로써 모든 대상자의 지역 생활을 내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복지보전의 분야별 계획】

- 요코하마 포지티브 에이징 계획(요코하마시 고령자보건복지계획/개호보험사업계획/치매시책추진계획)
- 요코하마시 장애인 플랜
- 요코하마시 어린이/육아 지원 사업 계획
- 건강 요코하마 21

전체상과 기본 이념

- 계획 추진을 통해 도모하는 모든 시(市)의 공통 목표상인 ‘기본이념’,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인 ‘지향하는 모습’과 그 실현을 위한 ‘계획 추진을 위한 시책’, 계획 추진의 전제가 되는 사고방식인 ‘계획 추진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기 요코하마시 지역복지보건계획(별칭: 요코하마 미소 플랜)

계획 기간: 2024년도~2028년도

<기본 이념> -계획 추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상-

누구나 안심하며, 건강하고 나답게 살 수 있는
‘요코하마’를 모두의 힘으로 만들자

지향하는 모습 1

<상호이해>

서로 존중하며,
안심하고 나답게
살 수 있는 지역

지향하는 모습 2

<유대형성>

서로서로 돌보고,
상호의지하여 건강
하게 살 수 있는 지역

지향하는 모습 3

<함께하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손을 내미는
사람도 고립되지
않는 지역

<계획 추진을 위한 활동>

1. 친숙한 지역에서 상부상조하는 구조 만들기
2. 지역의 복지보건활동 추진을 위한 기반 만들기
3. 다양성을 존중한 폭넓은 시민층의 참여 촉진

<계획 추진 시점>

- ① 지역주민과 지원기관·관련기관이 협동하여 지역복지보건을 추진한다
- ② 개개인의 삶에 주목하여 지원한다
- ③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지향하는 모습

1. 상호이해

-서로 존중하며, 안심하고 나답게 살 수 있는 지역-

- 지역에는 다양한 입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그 존재가 충분히 인식되지 않아 쉽게 고립되는 등, 삶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또 사회와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혼자서는 온전한 생활이 어려워진 이도 있습니다.
- 어떤 사람이라도 안심하고 나답게 살아가려면, 친숙한 지역에서 ‘사회는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곳에 있어도 된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 같은 동네에서 구성원 한명 한명의 다양성을 폭넓게 받아들여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나답게 사는 지역사회를 지향합니다.

2. 유대

-서로서로 돌보고, 상부상조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역-

- 구성원 한명 한명이 형성하는 ‘유대’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이웃과 세상 사는 이야기 나누기, 평소에 혼자 사는 이웃을 돌보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모이기, 생활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이웃 주민과 전문직이 도움을 주기. 이는 모두 생활 속에 존재하는 돌도 없는 ‘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교류의 장소와 기회를 통해 개개인의 ‘유대’를 형성함으로써 보람찬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심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개인의 ‘유대’는 심신 건강, 역할 창출 등을 통해 상부상조로 발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의 실현에 가까워집니다.
- 한편, 코로나의 영향이나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과거에 비하면 유대가 약해지거나 서로를 챙겨주는 기회가 줄어든 지역도 있습니다.
- 다시금 친숙한 지역에서 유대 관계를 맺는 중요성을 공유하여, 서로서로 챙기고 상부상조하는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합니다.

3. 함께하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손을 내미는 사람도 고립되지 않는 지역-

-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 중에는 ‘내 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다’, ‘누구에게 의지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등의 이유로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서 혼자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손을 내미는 사람도 고립되지 않고, 주변 사람과 의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역 내에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주민 간의 유대 맺기’, ‘분야를 뛰어넘은 행정·관련기관 등의 협력’ 등을 추진하여, 모든 사람과 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 홀로 남겨지지 않는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합니다.

1. 친숙한 지역에서 상부상조하는 구조 만들기

【전체적인 방향성】

일상 속 유대 관계를 통해 주민 간의 상부상조 시스템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지원기관·관련기관 간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강화시킵니다. 또한, 고령화 진행 등을 내다보고 치매 환자와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추진하는 동시에 생활 궁핍, 이른바 ‘8050 문제’, 은둔형 외톨이와 영케어러, 더블케어(자녀·노인의 동시 돌봄) 등 해당 가족에 대한 지원 등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육아가구가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 내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장소나 기회를 확충합니다.

(1) 일상 속 유대를 통한 주민 간의 상부상조 촉진

- 친숙한 지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서로를 챙기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 일상 속 유대를 통해 서로 돌보는 시스템 만들기
- 안심할 수 있는 지역 생활을 위한 상부상조 촉진

(2)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지원기관, 관련기관·단체의 연계

- 주민, 지원기관, 관련기관·단체가 연계하여 어려운 사람을 지원
- 각 관련기관이 가진 힘을 발휘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기능 강화
- 지원받는 자가 홀로 고립되지 않고 지역과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
-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구축

(3) 친숙한 지역에서 종합적인 권리옹호 추진

- 지역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권리옹호 지원의 강화
- 권리옹호 지원을 추진하는 지역 연계 네트워크 확충
(요코하마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

(4) 생활 궁핍자 지원을 통한 지역 만들기

- 복합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기관 연계
- 사회적 고립 상태의 예방, 해소
- 지원받는 사람의 고립 예방
- ‘지원받는 쪽’, ‘지원하는 쪽’을 정해두지 않고, 모두가 지역의 일원으로서 위치와 역할을 갖는 지역 만들기

1 친숙한 지역에서 상부상조하는 구조 만들기

1 예전에는 이웃과 자주 교류하고 수다를 나눴던 A씨

최근에 치매가 발병해서 집에 꼭 박혀 있었다.

2

어머나... A씨의 남편

3 어느 날 모임에서...

4

5 모임에서 옛 지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미소를 되찾은 A씨

6 이 마을에 웃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2. 지역의 복지보건활동 추진을 위한 기반 만들기

【전체적인 방향성】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에 의한 지역 활동 담당자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관련조직 및 단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법인/기업/학교 등이 복지보건 활동에 참가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구청, 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역 케어 플라자 등이 협동하여 지역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진행합니다.

(1) 지역 관련 조직·단체의 시스템 강화

- 지자체 주민조합, 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구민생위원·아동위원협의회 등의 활동과 운영의 지속 및 확충을 위한 지원
- 지역의 복지보건활동 추진을 위한 관련 조직·단체의 협력 시스템 구축
- 새로운 활동의 시작, 지속 및 확충에 필요한 지원 확충

(2) 사회복지법인·기업·학교 등의 주체적인 참여를 위한 지원

- 사회복지법인·기업에 의한 지역 공헌 활동 촉진
- 지역과 학교의 연계·협동 추진
- 다양한 주체가 연계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3) 구청, 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역 케어 플라자 등의 협동에 의한 지역의 지지 기반 구축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지원 추진
- 개별적인 지원과 지역 차원 지원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지구별 지원팀의 종합력 발휘
- 포괄적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의 연계 및 협동

2 지역의 복지보건활동 추진을 위한 기반 만들기



3. 다양성을 존중한 폭넓은 시민층의 참여 촉진

【전체적인 방향성】

장애인, 외국인, 성적소수자 등 다양한 입장과 배경, 가치관 차이 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역 구축을 추진합니다. 또한, 친숙한 지역에서 교류하고, 유대 관계를 맺어 사회에 참가할 기회를 창출 및 확대하는 동시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건강증진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 등 애프터 코로나를 비롯한 새로운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춘 유대 형성 등도 검토·창출합니다.

(1)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지역 만들기

- 입장과 배경, 가치관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풍토 만들기
- 일상적인 유대 속에서 상호이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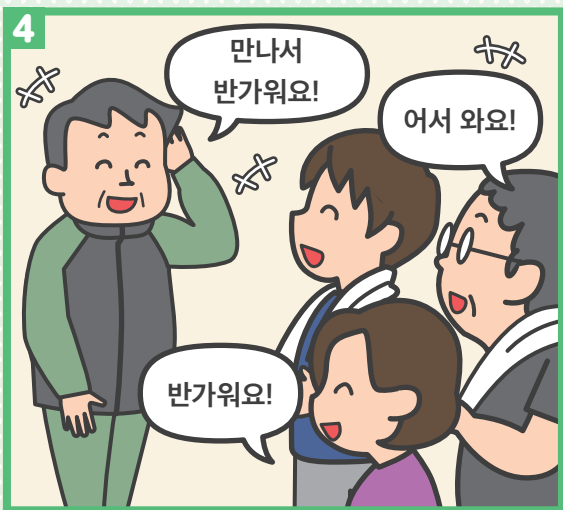
(2) 교류·유대, 사회참여 기회의 창출과 확대

- 친숙한 지역에서 교류하고 유대 형성의 중요성 공유
-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조직이 연결되는 장소와 기회 확대
- 삶의 보람 및 즐거움과 복지보건활동의 일체적 추진
- 어릴 적부터 지역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 만들기
-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춘 유대 형성의 검토·창출

(3) 유대를 통한 건강증진 추진

- 다양한 상황에서도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건강증진 추진
- 각자의 상황에 따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환경 만들기
- 지역주민, 관련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기업 및 상점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건강증진 추진

3 다양성을 존중하는 폭넓은 시민층의 참여 촉진



● 지역에는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와 청년,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이 있으며 각기 다른 입장과 배경,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서로 존중하고 살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유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상황을 바탕으로 장단점과 특성을 파악하여 상부상조하는 관계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4기 계획의 반성과 제5기 계획의 포인트

(1) 친숙한 지역의 '유대'와 '상부상조' 창출

- 폭넓은 대상자를 전제로 하며, 지역이 주체가 되어 돌보는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구성원 모두가 일상적인 보살핌을 주는 중요성을 주지시키며, 지역주민에 의한 일상적인 상부상조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일상 속에서 원만하게 유대 관계를 맺을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친숙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부상조하는 지역 구축을 위해 젊은 세대,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폭넓은 층에 대한 어프로치나 계발 방법을 궁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세대와 분야에 얽매이지 않는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 특정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을 주체로 하여 돌보기·조기 발견 시스템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앞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생활문제가 복잡화·심각화되기 전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역 내의 활동단체가 각종 문제의 분야를 뛰어넘어 횡단적으로 필요한 대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연합주민조합, 지구사회복지협의회 등과 기업, NPO 등의 단체가 협력하는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활동사례 공유, 활동 검토의 장 만들기 등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 판단력 저하 등을 겪는 이도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의 구축과 확충이 필요합니다.
- 지역 활동의 인원 부족 문제 해소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지역복지보건활동과 관련된 인재의 저변을 확대하고, 민생위원·아동위원이 안심하고 활동을 이어가게 해주는 서포트 체계가 필요합니다.

(3) 쉽게 고민을 털어놓는 환경 조성

- 주민 생활에 있어 더욱 친숙한 지역에 지원의 손길이 닿는 구조를 만들고, 이가 잘 기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 케어 플라자와 지역 육아 지원 거점 등의 정비가 진행됐습니다.
- 권리옹호지원의 지역 연계 네트워크 추진을 도모하며,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을 정비하고 권리옹호지원이 필요한 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 한편으로 최근에 이른바 '8050 문제'와 더블 케어, 영 케어러, 은둔형 외톨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못하고 지역 안에 고립되어 심각한 문제로 빠지는 사람들의 존재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스스로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궁핍자 자립 지원정책과의 통합적인 실시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쉽게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관련 기관이 협력해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4) 다양한 입장과 배경, 가치관 차이 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기회 창출

- 폭넓은 대상을 위한 보급촉진활동, 복지교육 등의 다양성 이해를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어린이 돌봄 시스템 구축, 생활 궁핍 세대의 지원, 외국 국적 아이와 지역의 교류 등 일상 속에서 천천히 유대를 맺을 수 있는 기회와 장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한편으로 장애인, 외국인, 성적소수자 등 다양한 입장과 배경,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그들의 생각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또한, 교류 등을 통해 시민 개개인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임으로써, 장애인이 지원을 요청하기 쉬운 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앞으로는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입장, 배경을 뛰어넘어 함께 일상 속 유대를 맺을 기회와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5) 지원기관 간의 정보 공유·연계 강화를 통한 지원 시스템 강화

- 지원기관이나 관련기관·단체, 지역 활동자의 특성에 따른 코디네이터 기능이 높아짐에 따라, 각각 연계·협동하여 지역복지보건활동의 추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잡화, 다양화하는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코디네이터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민 및 주민조직과 지역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 기업, NPO, 학교 등의 연계·협동 활동이 확대되고 있지만, 나아가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여 연계 단체의 강점을 살린 활동을 하려면 단발적인 활동을 넘어 지속적인 연계로 확장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 복합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는 분야를 초월하여 다양한 관련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이 참가하여 협동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특정 구역의 문제 공유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학교와 지역이 하나가 되어 아이를 키우는 위한 노력

- 지역 육아의 지원 거점 정비가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는 ‘부모와 아이의 쉼터’를 이용한 적 없는 부모·자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소로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 등의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 어릴 적부터 지역 내에서 유대를 맺을 수 있는 장소와 기회가 확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교와 지역이 하나가 되어 청소년, 젊은 세대와 지역과의 유대 관계를 꾸준히 형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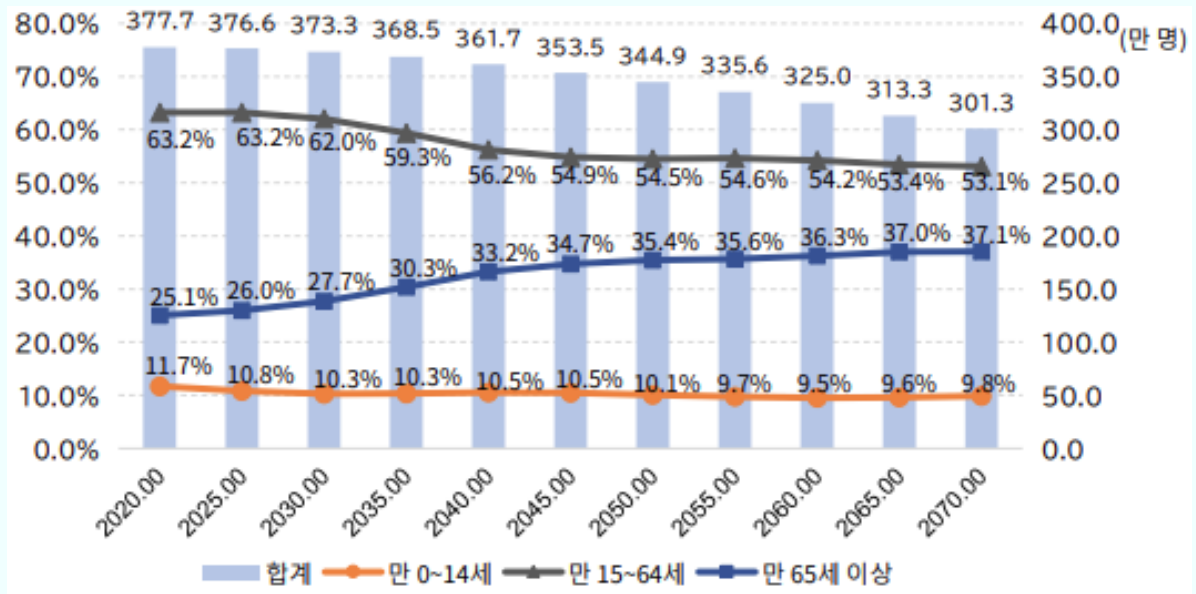
(7) 개개인의 관심 및 참가 의욕, 개성에 주목한 다양한 활동 기회 창출

- 다양한 세대와 사람이 교류하고 유대를 맺는 장소와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새로운 교류 방법, 개최 방법을 궁리하여 시민 참여의 저변을 더욱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주민 개개인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펼침으로써 사회 참여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복지보건활동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활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 또, 지역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제도, 활동 비결을 주지시키는 동시에,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각 주체의 강점과 특징을 살려서 연계·협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 단체와 참가자가 연결되는 교류의 기회와 자리를 더욱 늘려야 합니다.

요코하마시의 현재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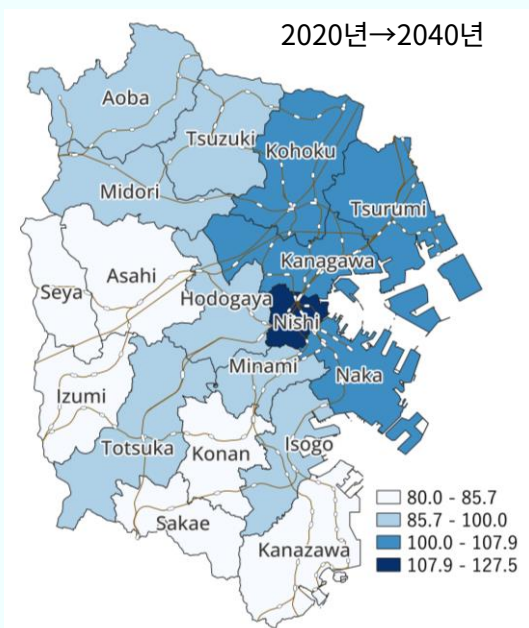
2021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 앞으로는 만 85세 이상의 인구 대폭 증가

요코하마시의 인구는 2021년에 정점을 맞이하고 이후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앞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진행이 우려되며, 특히 만 85세 이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전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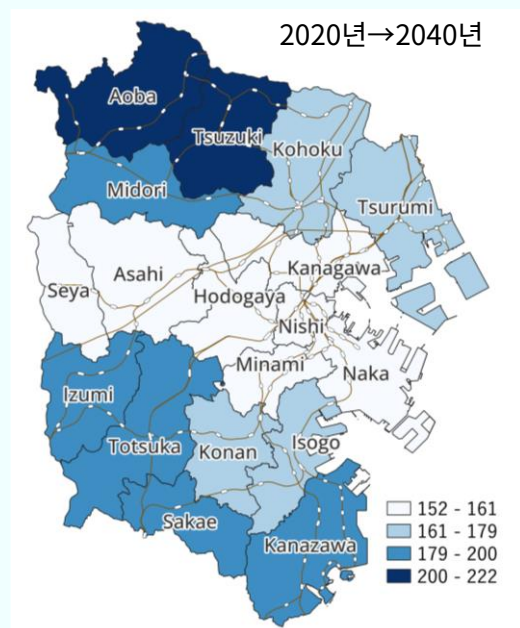


출처: 요코하마시 장래 인구 추계(정책국 기준시점: 2020년)

<총인구 변화>



<만 85세 이상 인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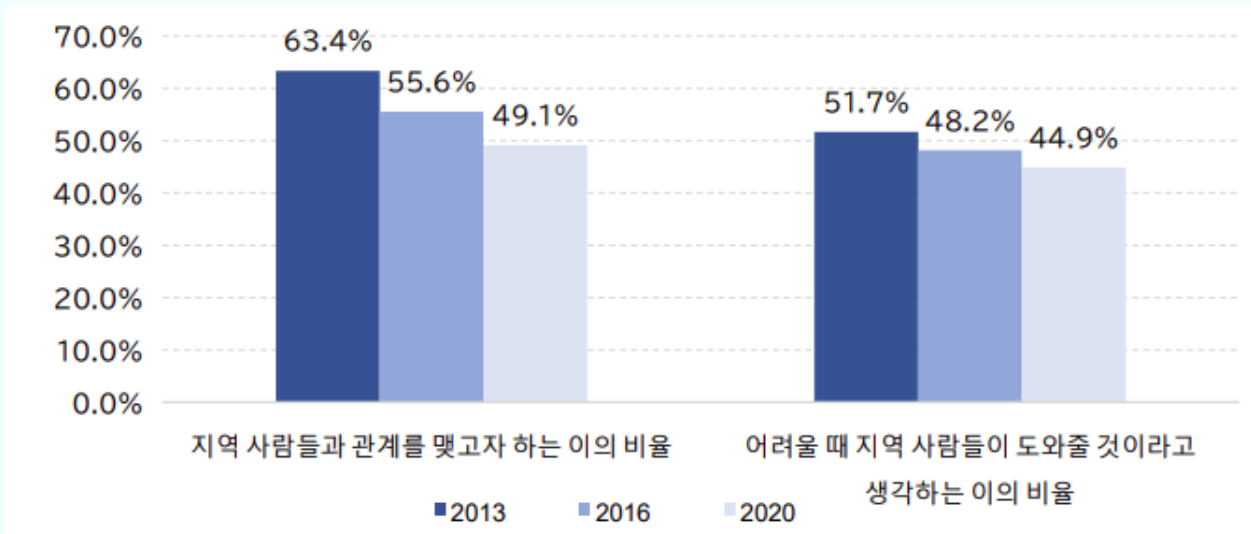


※2020년을 100으로 삼았을 때의 2040년 지수

출처: 요코하마시 장래 인구 추계(정책국 기준시점: 2020년)

지역의 '유대 관계'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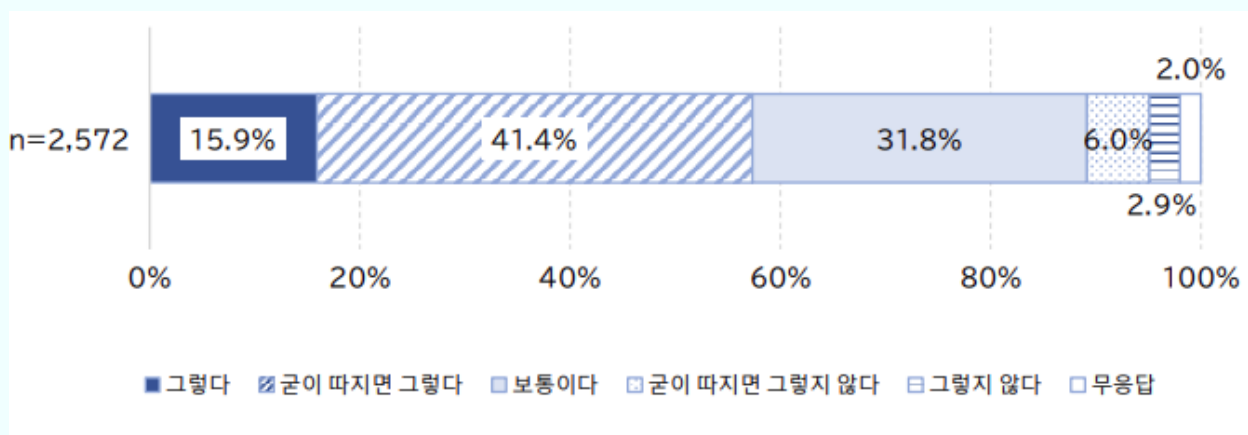
'건강 관련 시민의식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이의 비율'과 '지역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 의향이 있는 이의 비율'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로, 지역주민 간의 '유대'의 약화가 우려됩니다.



출처: 건강에 관한 시민 의식 조사(건강복지국)

50% 이상의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

시민 의식 조사의 '어떠한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은가'라는 문항을 살펴보면 '그렇다'가 15.9%, '굳이 따지면 그렇다'가 41.4%를 차지했습니다(총 57.3%).



출처: 2021년도 시민 의식 조사(정책국)



요코하마시 지역복지보건계획 캐릭터
‘치후쿠짱’

明日をひらく都市
OPEN X PIONEER
YOKOHAMA



ほら、
よこはまは
あったかい

요코하마시 건강복지국 복지보건과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TEL 045(671)3428

FAX 045(664)3622

kf-chifukukeikaku@city.yokohama.jp

사회복지법인 요코하마시 사회복지협의회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쿠라기초 1-1

TEL 045(201)2090

FAX 045(201) 8385

kikaku@yokohamashakyo.jp

본 개요판은 ‘제5기 요코하마시 지역복지보건계획’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코하마시 지역복지보건계획

🔍 검색

2024년 3월 발행